

## 국립 현대미술관 (가칭) 서울관 SHAPELESS MUSEUM

당선작 / 민현준(건축사사무소 오피아트)  
+ (주.시아플랜 건축사사무소)

대지위치	서울시 종로구 소격동 165,165-3,165-4,165-10
지역지구	도시지역, 제1종일반주거지역, 역사문화미관지구, 북촌 제1종 지구단위계획구역, 국군기무사령부 특별계획구역
주요용도	전시, 문화시설
대지면적	27,354.00㎡
건축면적	11,780.00㎡
연면적	38,605.79㎡
건폐율	43.00%
용적률	80.46%
규모	지하 2층, 지상 3층
발주처	국립 현대미술관
설계담당	오피아트건축_배규환, 이우진, 김한얼, 박종민, 박찬수, 이주형, 정성학, 배민정, 윤지애 시아플랜건축_조주환, 윤정현, 곽수희, 김동찬, 손석계, 박윤식 PLA_박현철, 임광수

우리가 제안하는 미술관은 서울의 역사적 장소에 새로운 아이콘을 만드는 것보다는 형태적으로는 단순하여 도시의 배경역할을 하고 공간적으로는 기존 아이콘들이 아름답게 보일 수 있는 장소를 찾아주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미술관의 형상 자체가 화려하지 않더라도 주변을 잘 활용하여 대단히 도덕적이고 아름다운 건물을 제안하고자 했다.

### 길과 마당(과거와 현재)

역사적으로 삼청동 일대는 전통적인 길들이 잘 보존된 지역이었다. 현재에도 북촌과 삼청동, 경복궁 등 옛 도시 골격이 잘 유지되고 있으며, 과거의 종친부 모습에서도 길과 마당의 연속성을 발견할 수 있다. 그러나 현재 미술관 부지는 군부대 등 특수 용도로 사용하면서 주변 길들과 단절되고 있으며, 도시적 맥락과는 관련성이 없는 폐쇄적 공간으로 주변을 황폐화시켰다.

### 회복(제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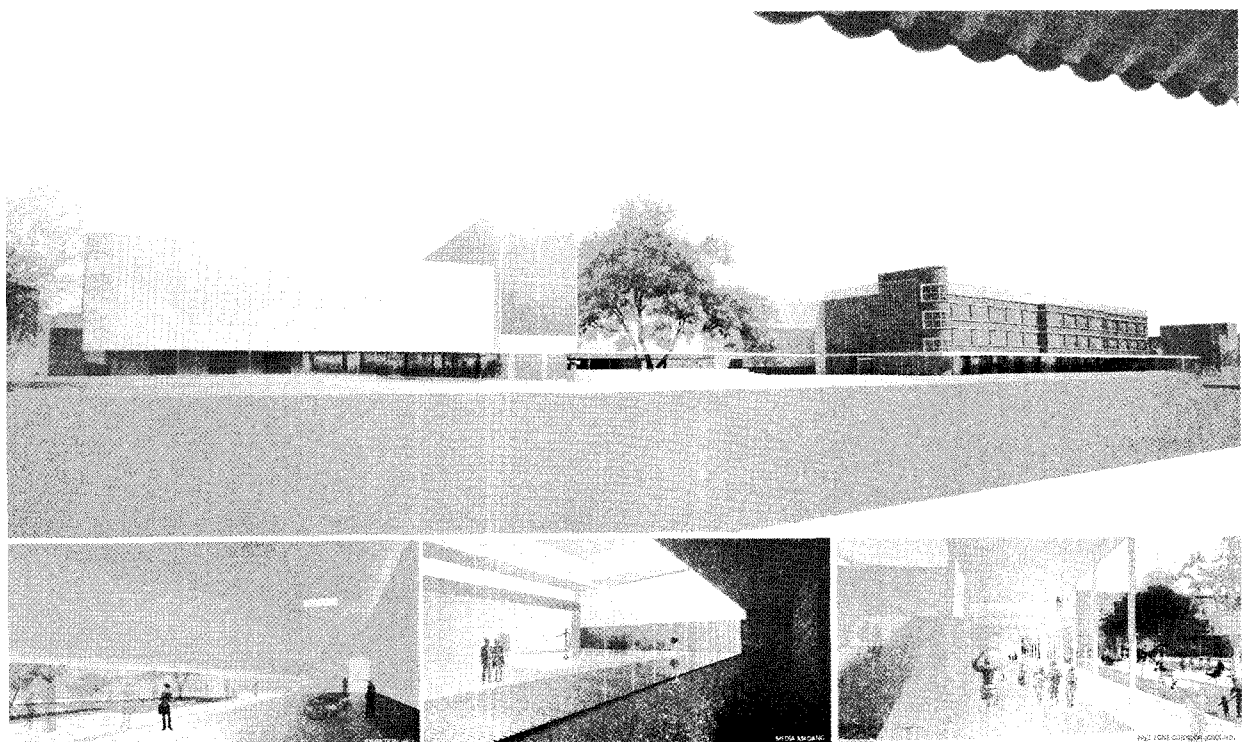
길과 마당의 재생은 이러한 도시적 단절을 회복하기 위한 도구로서, 미술관의 공간구성에 중요한 개념이다. 전이 공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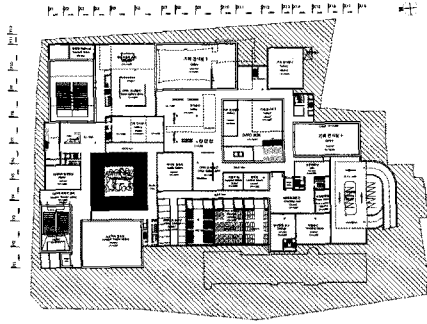
인 이 마당들은 주변의 길들과 연결되어 도시적 활력을 주는 동시에 전통성과 현대성이 만나는 매개 공간으로 제안된다.

### 군도형 미술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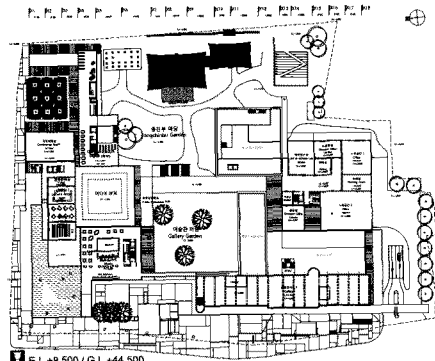
외부 마당 및 길과 연결된 전시공간은 군도형 즉, 네트워크형으로 배열되어 탈중심화된 미술관이 탄생한다. 이는 대지 주변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하며, 내외부가 통합되는 새로운 미래형 미술관이 된다. 군도형 미술관은 삼청동길과 구기무사의 진입이 상징적 중심이다. 이곳에서의 일련의 시퀀스를 가지는 전시관들의 연결은 서울관의 대표적인 전시관들이며 작품위주의 전통적 중앙집중적 미술관이 된다.

북촌길과 종친부길 주변진입은 부대시설 및 실험적 전시시설을 배치한다. 이 시설들은 하나로 연결된 지하공간의 잠망경처럼 마당위로 올라오며 다른 문화영역과 미술관을 융합시킨다. 이는 미술관 중심으로 연결되기도 하지만 독자적으로 도시문화와 반응하고 개별적으로 쉽게 시민들이 접근할 수 있도록 하여 미술관은 다른 문화와의 화학적 물리적 결합을 시도한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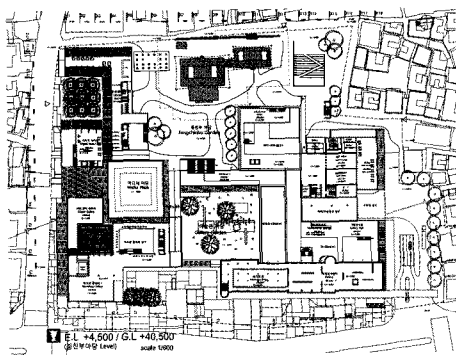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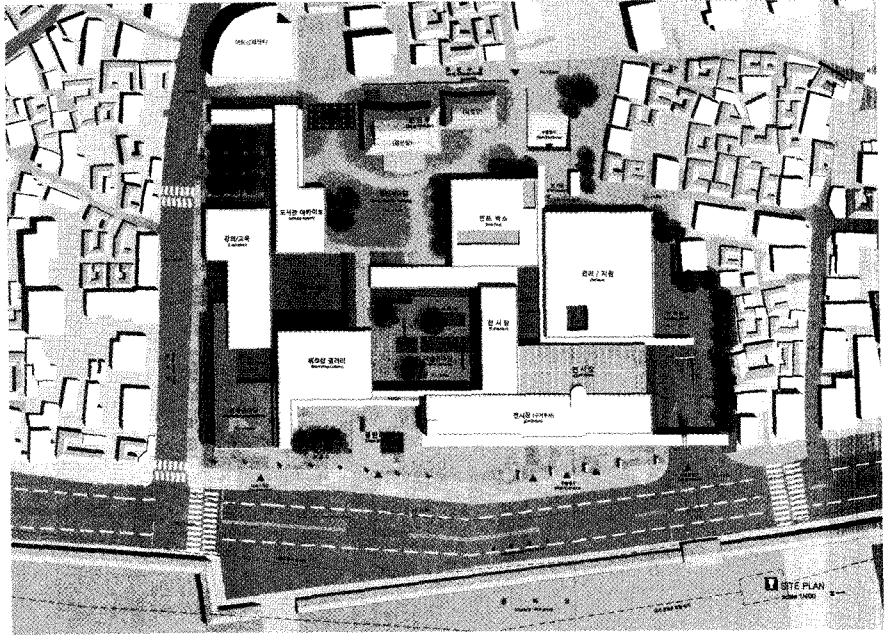
7 EL. 7,000 / G.L. +29,000  
(7층 700 Level) scale 1:5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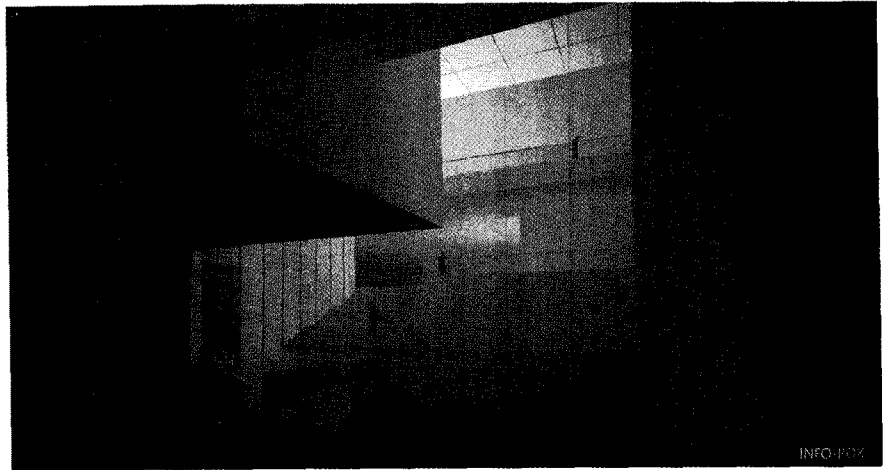
8 EL. +8,500 / G.L. +44,500  
(8층 850 Level) scale 1:5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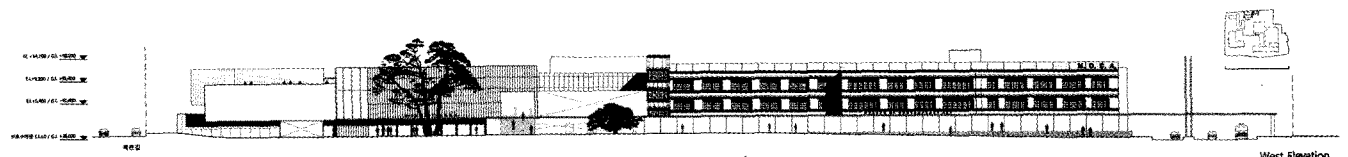
4 EL. +4,500 / G.L. +40,500  
(4층 450 Level) scale 1:5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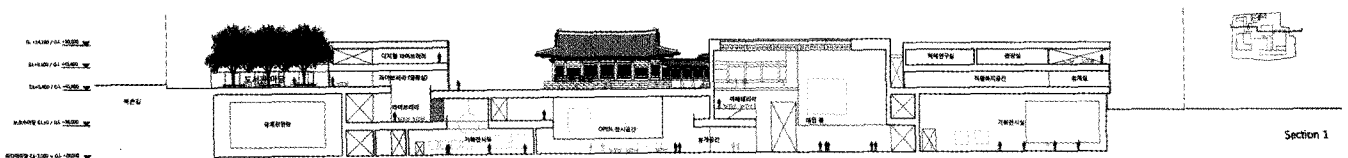
SITE PLAN  
scale 1:5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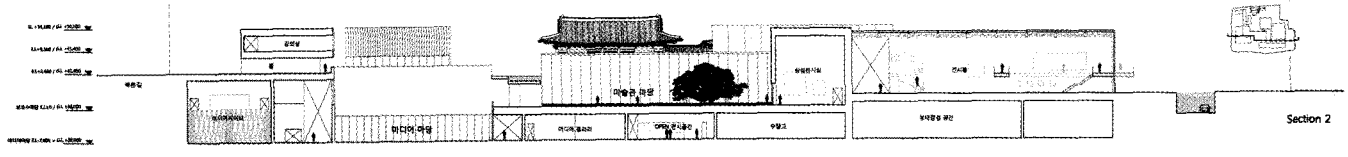
INFO BOX



West Elevation



Section 1



Section 2